

억양과 초점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

이영길(전남대)

<차례>

- | | |
|--------------|---------------|
| 1. 머리말 | 4. 초점 돌돌림과 억양 |
| 2. 높낮돌돌림 | 5. 맺음말 |
| 3. 초점과 정보 구조 | |

<Abstract>

A pragmatically-oriented study of intonation and focus

Yeong-Kil Lee

There is an indisputable connection between prosody and focus. The focal prominence in Korean, a prosodic realization of pitch prominence in an utterance, defines a focused constituent, the domain of which is identified by the Focus Identification Principle. To this is added the Basic Focus Rule which makes it possible to capture and interpret the focal domain, which can then be tested against the available context. The focal domain can be contextually made available by setting it off with information structure boundaries(I/S) identified by the Information Structure Identification Principle.

The fragment of the utterance enclosed within the IS boundaries can be recognized as 'new' information with the help of the Focus Domain Identification Rule. Since information structures are pragmatically tied to semantic levels of grammatical systems, the Basic Focus Rule is now replaced by the Focal Prominence Principle ensuring the focal prominence within the focal domain.

Close relationships exist between patterns of intonation and their expressiveness in terms of giving a pragmatically-oriented description of focus. This is particularly manifested in Korean sentences containing contrastiveness.

1. 머리말

전통적인 언어학의 분석 영역이 음성, 단어, 문장으로부터 텍스트, 담화 등과 같은

* 이 논문은 1998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음향학회 가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되었음.)

단위로 확대되면서 담화 분석, 대화 분석, 화용론 등의 분야와 관련된 억양 연구 및 억양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론언어학과 외국어 교육에서도 담화 연구와 더불어 대화의 이해와 표현에 대한 규칙을 기술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대화에 기여하는 요인들 중에는 문법성의 규칙뿐만 아니라 구두 담화(spoken discourse)에서의 발화를 지배하는 화용론적 또는 기능적 규칙들이 포함된다.

화용론적 관점에서 볼 때 억양이 단순히 소리의 높낮(pitch)이 아닌 '체계'로서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가질 때 문장의 정보 구조 표시인 '초점'(focus)¹⁾은 개별 문장이 어떻게 정보의 흐름과 발전에 기여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 장치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어의 높/낮돋들림(pitch prominence)과 초점의 관계를 논하고 초점 범위 내의 정보 초점이 정보 구조 경계에 의해 구조화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화맥(context of an utterance)에서의 정보 구조가 억양의 형태와 의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높낮돋들림

억양의 기본 단위는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전체이며 하나의 억양구 안에는 다른 음절에 비해²⁾ 더 높게 혹은 낮게 발음되는 악센트 음절이 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높낮에 의해 주위의 다른 음절에 비해 돌돌리는 현상을 높/낮돋들림(pitch prominence, PP)이라 부른다. 이러한 돌돌림을 갖는 악센트 음절을 (높/낮)돋들림 음절이라 하고 음절 위에 ★를 표시한다. 돌돌림 음절은 억양구를 지배하며 억양구 전체의 기본 의미에 기여한다. 또한 억양구는 화맥에 따른 가변성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면서 돌돌림 음절도 억양구 내의 어느 위치에서도 실현 가능하다. 국어에서 이러한 악센트에 의한 돌돌림은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높돋들림 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낮돋들림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³⁾ 다음 예들을 보자.

-
- 1) 초점과 억양 또는 강세와의 관계는 인정하나 학자들에 따라 관점이 다르다. 특히 초기 생성음운론의 입장에서는 초점 표시가 심층구조나 또는 표면구조냐의 논란이 있었다. 여기서는 화맥에서의 구체적 발화가 대상이다.
 - 2) 국어의 악센트에 관한 내용은 성철재(1992), 이호영(1997:48-49)을 참조할 것.
 - 3) 이에 대한 Bolinger의 견해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The experiments that I shall report suggest that it is not pitch RISE, but rather pitch PROMINENCE, that is essential to what we react to as stress. By prominence I mean a rapid and relatively wide departure from a smooth or undulating contour (Bolinger, 1958).

- (1) 가. 그 사람 / [★]괜\히 야단이야↓
 나. 그 사람 \ [★]괜/히 야단이야↑

위의 예들에서 /\은 오르내림을 나타내고, \ /은 내리-오름을 나타내며 문장 말미의 ↑ 또는 ↓은 각각 말미의 오름조 또는 내림조를 나타낸다. 이러한 어조 영역이 때에 따라서는 두 개 이상의 음절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 음절 하나에 돌돌림이 실현된다. (1)의 예들에서는 악센트음절 '괜'을 중심으로 그 뒤에 오름조와 내림조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것은 돌돌림 음절이 억양구의 억양 형태의 조절 능력에 기여함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다른 예를 보자.

- (2) 가. / [★]오늘\만이 날이니↓
 나. \ [★]오늘/만이 날이니↑

위의 예들에서는 높낮이 어조의 범위가 '오늘'로 이들의 높낮이 각각 다르다. (2 가)에서는 돌돌림음절 '오'에서 '늘'까지 오르내림이 지속되고 (2 나)에서는 내리오름이 같은 음절에 이어진다. 여기서 특징은 높돌돌림 음절 뒤에는 내림조가 형성되고 낮돌돌림 음절에는 오름조가 뒤따른다는 점이다. 돌돌림 음절을 포함한 '괜히', 또는 '오늘'은 그 뒤에 내림조나 오름조의 준비 단계를 제공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1)과 (2)의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한 높낮이 변화를 초래하는 음절은 청취상 다른 음절에 비해 매우 돌돌림이 큰 음절이다. 이것은 적어도 음절 단위의 성분이 갖는 특성으로서의 f_0 증가(increase) 또는 억제(suppression)이므로 이와 같은 악센트 음절의 높낮이에 의한 돌돌림을 '높/낮돌돌림'(pitch prominence, PP)이라 부르고 '높돌돌림'은 PP[+high], '낮돌돌림'은 PP[+low]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3) PP \rightarrow \left\{ \begin{array}{l} +high \\ +low \end{array} \right\} / \dots \text{ ____ } \dots]_P$$

(하나의 억양구 안에 나타나는 돌돌림음절은 [+high] 또는 [+low]이다.)

이와 같은 돌돌림 음절은 문장 내에서 초점 성분 할당에 필연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억양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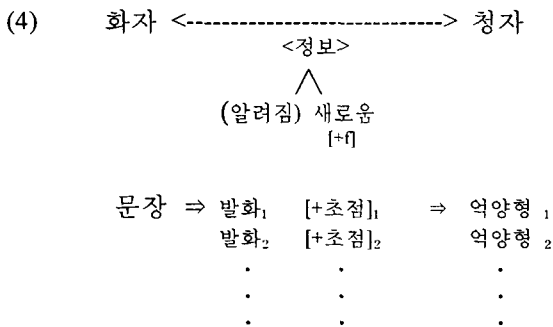
3. 초점과 정보 구조

화맥 의존성(context-dependence)과 조절 가능성(adaptability)이라는 관점에서 발

화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의사전달 행위에 있어서 모든 발화는 주로 어떤 것에 관한 ‘언명’(statement)으로서 ‘화제’(topic 또는 theme)와 ‘평언’(comment 또는 rheme)으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발화를 화맥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화제는 ‘주어진’(given) 요소를 포함하고 평언은 ‘새로운’(new) 정보를 말한다. 억양은 담화를 정보의 단위로 구분하고 이러한 정보 단위들을 구조화한다.⁴⁾ 그런데 이러한 정보 단위들은 구조상 모호한 경우들이 많으므로 화맥에 따라 구조적 가능성들이 결정된다.

말 속에서 정보 단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억양상의 기준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휴지에 의한 단위를 중요시하거나, ‘어조군(tonic group) 내에서 핵음만 존재한다’는 Halliday(1967)의 요건을 약화시키려고도 한다. 특히 Bolinger(1958, 1972)에서는 발화 내의 단어들은 ‘새로움’, ‘대조’, 그 외의 특수 정보의 신호를 위해 초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초점은 문법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 화맥에 따라 특정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대체로 초점의 존재는 인정하나 억양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Chafe(1970)의 말대로 ‘언어란 말하는 이의 마음으로부터 듣는 이의 마음으로의 정보의 전이를 허용해 준다’고 하면 이러한 정보는 문장들로 조직되고 각 문장은 여러 형태의 의미 단위를 갖는다. 말하는 이가 전달하는 정보 중에는 자기 마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가 있고, 말하는 이 - 듣는 이가 주어진 순간에 이미 공유하는 ‘주어진’ 정보가 있다.⁵⁾ 결국 정보란 말하는 이가 명제를 첨가시킴으로써 듣는 이의 앎을 증가시켜 주는 의사전달 행위와 관계가 있다. 화자와 청자 사이의 정보 교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Halliday에 의하면 정보단위는 필수적인 ‘새로운’ 요소와 수의적인 ‘주어진’ 요소로 되어 있고 ‘새로운’ 요소가 돌돌림을 갖는다고 한다(1985:275). 서화진(1992)에서는 국어와 관련하여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다.

5) 많은 학자들이 정보(information)와 관련하여 old/new, given/new, presupposition/assertion 등으로 구분·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알려짐’/‘새로움’의 용어를 쓰기로 한다.

모든 문장은 알려진 요소와 새로운 요소로 되어 있지만 화맥에 따라 알려진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위의 도식에서 알려짐이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문장이란 화맥에 따라 특정 억양 구조를 갖는다. 이것이 억양 의미, 즉 초점 구조의 기능이다. 초점을 문장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f(초점)]라는 필수적 표시를 해주는 이분 변향으로 본다면 전적으로 [-f]인 문장은 없고 초점범위(focus domain)의 형성은 결국 화용상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 X, Y의 대화는 ‘새로움’과 ‘알려짐’ 그리고 높/낮돋들림과 초점 및 초점 범위를 보여주는 예이다.

(5) X : 미연엄마한테는 왜 갔어?

Y : 저 미연엄마한테 빌딩 / 사라[★]고 했어요 ↓

위의 (5)에서 의문사 ‘왜’는 전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빌딩에 관한 문제는 이미 공유된 사실로 ‘미연엄마한테 갔음’을 전제로 하고 그 이유를 묻는다. 그러나 화맥에 따라 Y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초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6)

전제 = <주어짐>	초점 = <새로움>
가. 저 미연엄마한테 빌딩 사라	했어요
나. 저 미연엄마한테 빌딩	사라
다. 저 미연엄마한테	빌딩 사라
라. 저	미연엄마한테 빌딩 사라

초점 범위끼리의 합류를 인정할 경우에 말하는 이는 필요하다면 어떤 요소라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초점 범위의 구분에 대한 문법적 설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초점의 개념은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Bolinger(1954:152)는 초점, 즉 돋들림 음절을 문장의 ‘정보 중심’(point of information)으로 정보가 최대로 집중된 곳이라 한다. 그리고 초점을 정보 구조의 표시로 간주한 Kanerva와 Gabriele의 초점에 관한 정의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Focus, as a marker of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a sentence, is a key conceptual tool for modelling how an individual sentence contributes to the flow and growth of information in discourse (Kanerva and Gabriele, 1995).

그러나 초점을 형식적 범주가 아닌 의미-화용론적 범주로 정의한 Lambrecht는

‘알려짐’/‘새로움’ 대신에 ‘전제(presupposition)’/‘단언(assertion)’으로 구분하고 초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OCUS : The semantic component of a pragmatically structured proposition whereby the assertion differs from the presupposition⁶⁾ (Lambrecht, 1994:213).

위의 정의에 따라 다음 국어의 예를 보자.

- (7) X : (대학에서 무얼 합니까?)
Y : 저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합니다.

위의 예 (7)에서 정보의 집중 요소는 ‘언어학’이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말하는 이가 정보 요소로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 메시지의 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만일 초점이 새로운 정보와 동일시된다면 ‘언어학(을 전공합니다)’은 전체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요소로서만 정보 가치가 있을 뿐이다. ‘새로운’ 것은 성분이나 지시대상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말하는 이가 대학에서 x를 전공한다’라는 화용론적으로 전제된 명제 속에서의 역할이다. Lambrecht의 말처럼 초점은 관계 속의 화용론적 범주이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언어학’이라는 초점은 문장의 발화를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 주는 화용론적 해석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화용론적 관계가 초점 관계이며, 듣는 이의 마음속에 새로운 정보 상태를 초래하는 것은 바로 ‘언어학’과 명제의 나머지 부분 사이의 관계이다. 바로 초점 표시의 기능은 명제의 요소와 전체 명제 사이의 초점 관계를 알리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정의는 초점을 통사적 구조를 가진 문장의 문법적 계층에서가 아니라 화용론적 구조로 된 명제의 의미 계층에서 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 (8) 문장 :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십니다.
전제 : “x는 주말에 하와이에 가십니다”
단언 : “x = 사장님”
초점 : “사장님”
초점범위 : 사장님은

위의 분석은 Lambrecht의 이른바 논항-초점 구조이다. 이것을 문장-초점 구조로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다.⁷⁾

6) 여기서 presupposition과 assertion은 실제로는 pragmatic presupposition (=old information)과 pragmatic assertion (=new information)을 말한다(Lambrecht, 1994:52).

7) Lambrecht는 초점 구조를 술부-초점(predicate-focus), 논항-초점(argument-focus), 문장-초점(sentence-focus)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에 관련된 예들의 공통점은 문장 내의 주어인

- (9) 문장 :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십니다.
 전제 : ----
 단언 :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십니다”
 초점 :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십니다”
 초점범위 : 문장

적어도 발화의 해석에 있어서 초점 구조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초점 성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뿐만 아니라 초점구조가 가질 수 있는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초점 성분의 한계 외에도 초점의 적절성 문제⁸⁾는 억양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위의 국어의 예와 관련하여 다음 (10), (11), (12), (13)의 예를 보자.

- (10)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십니다.
- (11) X : 사장님 주말에 LA에 가신다던데.
 Y : 아닙니다.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십니다.
- (12) X : 사장님 무척 바쁘신 모양이야.
 Y :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십니다.
- (13)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주말^{*}에 하와이에 가십니다.

적어도 세 개의 정보 가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10)은 초점 정보가 우연적인 명제로서 이른바 무표적 초점을 갖고 화맥에 따라 여러 높/낮돌림이 실현될 수 있는 예이지만, (11)과 같은 상황에서 좁은 초점과 대조적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적으로 새로운 발화인 (13)의 해석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무관하다. 마찬가지로, (10)이 (13)에서처럼 전체 발화에 미치는 넓은 초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12)의 해석과 초점 선택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발화 계층에서는 문장 계층에서 가능한 전체 초점 선택의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화맥 속의 발화 계층에서는 문장 계층에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고려할 바탕이 없다. 따라서 (11)-(13)의 예들은 한 문장의 서로 다른 발화들로서 독립적이며 각각의 발화는 다른 화맥들과 배타적으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화용론적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발화들의 공통점을 찾을 필요는 없고 초점 구조의

음절의 운율상 돌림(prosodic prominence)이 유일한 초점 표시 장치로 여긴다(Lambrecht, 1994:223-225).

8) Marek(1987:32-33)은 초점이 초점규칙에 의해 예측되고, 특정 화맥에 있어서 적절하다는 이른바 초점의 적절성(appropriateness) 문제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선택 영역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초점에 직접 도달하는 방법의 모색이 중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예를 다시 고려해 보자.

- (14)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십니다.
[+f]

주말에
[+f]
하와이에
[+f]
주말에 하와이에
[+f]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십니다.
[+f]

- (15) 가. 누군가 주말에 하와이에 간다.
나. 사장님은 언제 하와이에 간다.
다. 사장님은 주말에 어디에 간다.
라. 사장님은 언제 어디에 간다.
마.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다.

위의 다섯 가지 발화의 해석과 관련된 초점 구조를 결정하는 데에 억양의 역할이 크다. 특정 초점의 선택이 억양 형태의 변화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15)의 초점 선택과 관계되는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특정 억양 조건하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6) 가.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신다.

나.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신다.

다.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신다.

라.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신다.

마.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신다.\

위의 예들을 볼 때 억양 형태의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높낮이변화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무 데서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 지점이 초점 성분의 첫 번째 부분과 일치한다. 이 때 변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돌출됨이 더 크고 높낮이의 변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초점 범위가 넓어지는 (16 라,마)의 경우 발화 전체가 초점범위가 되지만 화맥에 따라 문장내의 적절한 요소에 높/낮돌출됨을 부여하고 전체가 높어조를 유지하는 하나의 억양형을 사용한다.)⁹⁾ 초점과 억양 사이의 이러한 관계가 어떤 규칙성을 반영해 준다고 생각한다

9) 말하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개 또는 세 개의 말 토막이 되어 각각의 말 토막이

면 국어의 경우 발화 해석을 위해 다음 (17)과 같은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17) 국어 초점 원리

$$[... C ...]ux \rightarrow F / [\dots \underset{pp}{\dots}]ux$$

(높/낮돋들림을 갖는 발화 x의 성분 C는 초점이다.)

높낮, 크기, 휴지, 빠르기(tempo) 등 음성적 원인들에 의해 돋들림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초점과 돋들림 사이의 체계적 대응관계를 성립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위의 원리에서 PP가 [+high]나 또는 [+low]가 될 수 있음은 이미 논한 바 있다. 원리 (17)에 의해 발화 내의 초점 성분의 영역이 확인되면 초점 해석에 화맥이 유용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전체 억양 곡선을 고려함으로써 억양이 초점 성분의 모호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발화에 사상된 억양이 발화를 초점 부분과 무초점 부분으로 구분해 준다. 만일 초점 할당이 수의적으로 발생하고 높/낮돋들림을 어느 음절에나 할당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억양도 실현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닐 것이다.

화맥 밖에서 ‘돌연 발화’로 간주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18) /선생님은\ 지각하셨어요↓

위의 예와 같은 발화는 이른바 ‘뉴스’ 발화로서 예를 들면 ‘웬일이야?’ 또는 ‘어찌된 영문이지?’ 등과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좁은 초점이면서 ‘대조적’ 초점이 의도적일 때에는 돋들림과 억양이 같은 분포를 형성하기도 한다.

(19) X : 선생님도 학생도 지각이에요.

Y : (학생은 왔는데) /선생님은\ 지각하셨어요↓

위의 예에서 ‘학생’과 ‘선생님’을 대조 표현하면서 지각한 사람이 바로 ‘선생님’임을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여기에 돋들림과 오르내림이 형성된다. 한 문장에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영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초점에 직접 도달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발화를 돋들림의 크기로 구분함으로써 그것이 ‘새로운’ 정보, ‘알려진’ 정보와 관련된 초점 요소/무초점 요소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국어의 경우 높/낮돋들림은 ‘새로움’이 의미적으로 존재함을 반영해 주는 표면적 사실이다.¹⁰⁾

오름조나 또는 내림조가 될 수도 있다.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십니다↓

사장님은↓ 주말에 하와이에 가십니다↓

화맥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와 ‘알려진’ 정보에 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바꿔 말하면 특정 발화의 해석과 관계되는 화맥을 근거로 새로움/알려짐을 결정한 후에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할당하고 알려진 정보는 무초점 상태로 돌돌림을 포함하지 않게 한다. 이 경우에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는 발화 부분이 ‘초점 범위’(focal domain)가 되고 높/낮돌돌림은 이러한 초점 범위 내의 적절한 음절에 위치해야 하고, 이 때의 높/낮돌돌림은 초점 돌돌림(focal prominence)이 된다. 이와 같은 초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20) 기본 초점 규칙

- (1) 초점 성분은 초점 돌돌림 음절을 포함한다.
- (2) 높/낮돌돌림 ⇔ 초점 돌돌림

(21) 정보 구조 원리¹¹⁾

초점 돌돌림을 포함하는 초점 성분은 하나의 정보 구조이다.

위에서 말한 초점 성분은 어휘뿐만 아니라 그 밖의 통사(-의미적) 범주를 말한다. 정보 구조를 의미 패턴의 하나로 정의하려는 Halliday와 Hasan은 이른바 영어의 어조군(tone group)과 관련하여 정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One of the patterns of meaning is INFORMATION structure, which is the ordering of the text, independently of its construction in terms of sentences, clauses and the like, into units of information on the basis of the distinction into GIVEN and NEW; what the speaker is treating as non-recoverable (new). This aspect of the meaning of the text is realized in English by intonation, the information unit being expressed as one TONE GROUP. (Halliday and Hasan, 1976).

초점 범위와 돌돌림의 관계를 이른바 ‘초점 투영’(focus projection)의 문제로 간주한 Lambrecht(1994:214)는 초점 범위를 통사적 범위에 국한하여 구 범주(phrasal category)로 설명함으로써 어휘 범주를 배제한다.

10) Halliday는 정보 초점을 일종의 강조로 간주한다.

Information focus is one kind of emphasis, that whereby the speaker marks a part (which may be the whole) of a message block as that which he wishes to be interpreted as informative. ... The focus of the message, it is suggested, is that which is represented by the speaker as being new, textually (and situationally) nonderivable information (1967: 204f).

11) 여기서는 Marek(1987, 1992)에 따라 정보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개념은 오히려 Lambrecht(1994)에 가깝다.

INFORMATION STRUCTURE: That component of sentence grammar in which propositions as conceptual representations of states of affairs are paired with lexico-grammatical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mental states of interlocutors who use and interpret these structures as units of information in given discourse contexts (Lambrecht, 1994).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는 오직 주어진 담화 상황에서의 실체(entity)와 정황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화용론적 해석으로 간주함으로써 실체와 정황은 어휘가 아닌 구 범주에 의해 통사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규칙 (20), (21)은 다음 (22)와 함께 적용된다.

- (22) 초점 해석 원리
초점 ⇔ 새 정보

초점 도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장 돋들리는 음절에 높낮이 할당된다. 그 다음 기본 초점 규칙에 의해 높/낮돋들림 음절을 포함하는 성분을 초점으로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구조 원리에 의해 초점 성분은 정보 구조 단위가 되고 정보 구조 내의 초점 돋들림은 결국 정보 초점 역할을 한다.

다음 예를 보자.

- (23) X : 백화점에서 너의 언니 봤어.

Y : 그랬을 거야. 우리 언니 예쁜 /구두\ 샀으니까↓

위의 예에서 Y의 대답 중 '새로운' 요소는 '예쁜', '구두', '샀어' 등을 포함하지만 높/낮돋들림은 '구두'의 첫 음절에 할당되기 때문에 다음 (24 가, 나)는 주어진 화맥에서 제외되고 (24 다)에서처럼 '구두'의 첫 음절에 초점돋들림이 할당된다.

- (24) 가. *우리 언니 예쁜 구두 /샀어\ ↓

나. *우리 언니 /예쁜\ 구두 샀어↓

다. 우리 언니 예쁜 /구두\ 샀어↓

초점 범위가 화맥에 의해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돋들림과 초점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초점 할당을 여과시켜주는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초점 범위를 제한시키는 규칙을 적용한다.

(25) 초점 범위 제한 규칙

$$\emptyset \rightarrow I/S / _ x[\dots]x _ (I/S = \text{Information Structure})$$

(‘새로운’ 정보를 갖는 최대 성분의 앞뒤에 I/S를 삽입하라.)

위와 같은 ‘초점 범위 제한 규칙’에 의해 생긴 ‘정보 구조 경계’는 초점 범위를 제한해 준다. 따라서 I/S 경계에 의해 ‘새로움’이 발화 끝 또는 발화 처음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I/S 경계 안에 있는 발화 요소가 초점 범위가 된다. 다음 (26)에서 ‘선생님’이 초점 성분이지만 초점 범위는 ‘도’를 포함하여 전체가 정보구조 역할을 한다. (27)에서 ‘예쁜’이 초점이 되지 못한 것은 정보 구조 경계가 ‘구두 샀어’라는 초점 성분 ‘구두’를 포함한 의미 단위가 정보 구조가 된다.

(26) I/S[F[선생님]도]I/S 지각하셨어요.

(27) 우리 언니 예쁜 I/S[F[구두] 샀어]I/S

문장이 처해 있는 언어적 환경이나 언어외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문장의 형식적 특성을 이해할 수 없다. 정보 구조의 개념은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한다. 담화는 곧 의사전달 환경에서 문장의 쓰임새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는 일반적인 화용론의 영역과 관련이 된다.

문장의 정보 구조를 담화 내의 명제가 갖는 화용적 구조에 대한 형식적 표현으로 간주하는 Lambrecht에 의하면 정보 구조의 가장 중요한 범주로 (i) 전제(presupposition)와 단언(assertion), (ii) 동일성(identifiability)과 환기성(activation), 그리고 (iii) 화제(topic)와 초점으로 구분한다.¹²⁾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 구조는 운율적 양상, 특수 문법적 표지, 통사 성분의 형태, 통사 성분의 위치와 순위, 복합적 문법 구조 형태, 관련 어휘항들 사이의 선택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실현된다. 결국 정보 구조는 문법 체계의 모든 의미 계층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음 국어의 예를 보자.

(28) X : 이거 오이 아니에요?

Y : 오이를 설탕에 /[★]절인 거야\ ↓ (‘오이를 /[★]설탕에\ 절인 거야’ 대신에)
오이를 I/S[설탕에 F[절인 거야]]I/S

위의 대화에서 X는 ‘오이’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한데 대해서 Y는 ‘절인 거야’

12) Lambrecht는 능동/수동 등과 같은 의미적으로는 동일하나 형식적, 화용적 차이를 가진 문장의 쌍들을 ‘이문장’(allosentence)이라 부른다. 따라서 문장의 정보 구조 차이는 이러한 이문장들 사이의 대조에 의해 이해된다고 한다(1994:6).

안에 돌돌림을 부여하였으나 ‘설탕에 절인 것’임을 새로운 정보로 제공하고자 한다. 즉 ‘설탕’이 가질 수 있는 대조성은 관여성이 없고 단지 이미 알려진 정보 ‘오이’에 대해 초점 영역인 ‘설탕에 절인 거야’ 전체가 정보구조 기능을 한다. 즉 ‘설탕’과 ‘절인 거야’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초점 영역이 앞 요소를 끌어들이는 견인력을 발휘한 것이다.

국어에는 이외에도 통사론적·형태론적·음운론적 초점 역할을 하는 예들이 있다. 다음 예들을 보자.

- (29) 포도주 / [★]는 \ 가끔 합니다 ↓
 VS[F[포도주는]]VS(*VS[포도주]VS는/*VS[는]VS) 가끔 합니다.
- (30) 열심히 공부 / [★]만 \ 해라 ↓
 열심히 VS[F[공부만]해라]VS(*VS[공부]VS만/ *VS[만]VS) 해라.
- (31) 날 이 풀로 만든 건 / [★]아버지 \ 예요 ↓
 날 이 풀로 만든 건 VS[F[아버지]예요]VS(*VS[아버지]VS예요)

위의 예 (29)에서 ‘는’은 음운론적 초점 표시로 대조적 의미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높돌림을 갖는다. (30)의 ‘공부만’의 ‘만’은 일종의 한정어로서 역시 높돌림을 갖는 형태론적 초점 범위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형태론적 초점 범위를 한정하는 예로는 가상어인 ‘-라도’가 있다.¹³⁾ 특히 Kim(1985)에서는 ‘만’과 같은 이른바 극성어(polarity words)들은 초점 배분에 참여하지 않고 초점의 역할만 수행하면서 [+f]인 내용의 의미를 첨가해 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정보구조 원리에 배치되는 주장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30)의 경우에 돌돌림이 없는 ‘공부’가 초점 범위가 되어 정보구조에서 돌돌림음절 ‘만’이 배제되는 이상한 결과가 될 것이다.¹⁴⁾ (31)의 예는 일종의 분열문으로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초점 영역 내의 한 음절에 할당된 높/낮돌돌림은 초점 돌돌림이 되고 정보 구조 경계 안에 위치함으로써 정보 초점이 된다.

이미 앞에서 제시한 기본 초점 규칙 (23)은 다음 (32)와 같은 초점 돌돌림 원리로 수정할 수 있다.

(32) 초점 돌돌림 원리

PP → f / VS[...__...]VS

(초점 범위 내의 한 성분에 할당된 돌돌림을 초점돌돌림으로 하라.)

13) 이와 같은 분류는 홍사만(1985:122)에 의한 것이다.

1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m(1985)을 참고할 것.

위의 원리 (32)는 초점이 될 성분을 선택하고 그 영역은 가능한 화맥에 대해 검증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전체 초점 범위를 포함하는 가능한 최대 초점이 되도록 해주는 제약이 필요하다. 정보 구조 경계 안에는 반드시 돌들림이 있고 그것은 정보 구조 내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위의 예 (29), (30)에서 음운론적 초점표시 ‘는’이나 또는 한정어인 ‘만’,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 ‘비과학적’ 등에서 쓰이는 형태론적 초점표시인 ‘반’, ‘비’ 등이 초점 돌들림을 받으면서 그것을 포함한 성분이 전체 정보 구조 경계를 이룬다. 돌들림은 적어도 초점 범위 내의 어느 음절에도 발생 가능하지만 (29), (30), (31)의 예들에서는 돌들림의 위치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나타나면서 정보 구조 경계에 대한 명시적 표시가 된다.

다음 이호영(1997)의 예를 보자.

(33) X : 너 어제 뭐 했니?

Y : 바다에서 친구하고 / [★]놀았어 \ ↓
 /s[F[바다에서 친구하고 놀았어]]/s (/s[친구하고 F[놀았어]]/s)

위의 대화에서 Y의 응답은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므로 앞에서 언급한 Lambrecht의 문장 초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른바 정보 흐름 원리(information flow principle)에 따라 가능한 한 뒤쪽에 발생하는 무표적 돌들림이 된다. 만일 ‘친구하고’의 첫 음절에 돌들림을 부여할 경우에는 정보 구조는 /s[F[친구하고] 놀았어]가 될 것이다. 물론 문장의 첫 요소인 ‘바다’ 또는 ‘친구’에 돌들림이 올 수도 있다.

결국 의사전달적 의도에 의해 돌들림을 해석한다는 것은 초점 돌들림 요소의 상대적 의사전달 가치와 운율적 돌들림 사이의 상관성의 개념에 근거한다. 문장의 돌들림은 하나의 단어 또는 단어 내의 한 음절에 발생하지만 돌들림으로 표시된 의미 영역은 정보 초점을 위해 일련의 단어들에 확대된다.

4. 초점 돌들림과 억양

이미 앞에서 언급한 ‘정보’는 담화구조의 한 형태이다. 모든 담화는 일련의 정보 단위로 구성되며 각 정보 단위는 하나의 억양구조로 실현된다. 이러한 억양 단위 분포는 말하는 이가 담화를 메시지로 구성함을 의미한다. 각 정보 단위 내에는 말하는 이가 선택하는 정보 초점이 있고 이것이 바로 한 음절에 할당되는 돌들림과 일치한다. 그러나 정보 초점이 지배하는 정보 구조는 화맥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할 수 있다.

(높/낮돋들림)음절 ----> (초점 들들림)초점성분 ----> (정보초점)정보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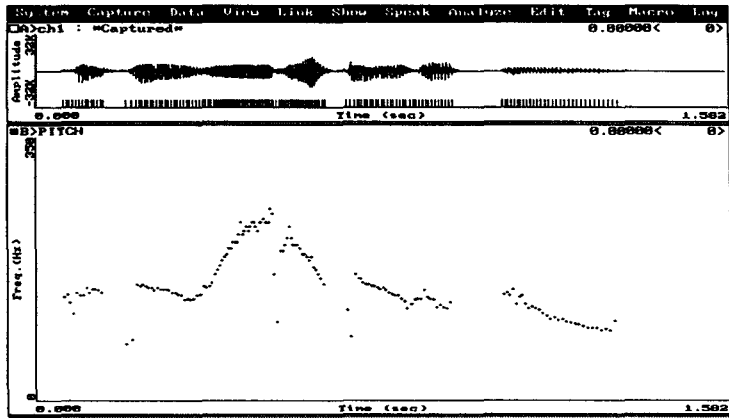
억양과 초점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는 결코 분명치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억양이 구두 담화에서 발화 의미에 기여하는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하나의 높/낮돋들림을 포함하는 어휘 및 통사적 범주는 하나의 발화체로서 억양구를 형성하고 억양구 내의 들들림은 억양구가 갖는 전체 억양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초점 범위 내에서 발화의 초점 기능을 하는 성분과 관련되는 악센트는 필수적으로 발화 내의 가장 들들리는 음절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른바 내림조, 오름조, 내리-오름조 등과 같은 곡선 어조(contour tones)를 형성하게 해주는 중심 역할을 한다. 다음 (34 가, 나, 다, 라)의 예들은 높/낮돋들림에 의해 전체 높낮이형과 기본 억양 패턴이 결정되며 기본적인 의미 변화를 초래함을 보여준다.

- (34) 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나.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라. /[★]무슨\ 일이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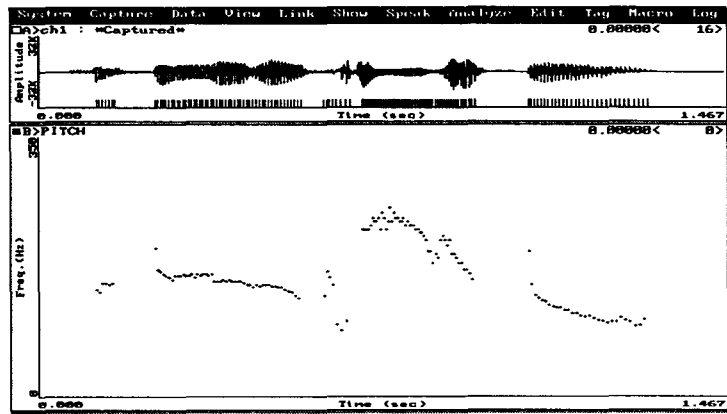
위의 예 (34 가)와 (34 나)는 말미 억양형은 같으나 들들림 위치가 달라 의미도 달라지는 예들이다. (34 다)는 비록 (34 나)와 들들림 위치가 같지만 말미 억양형의 차이로 의미 전달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34 라)는 정보 의문문으로 의문사에 강한 정보 가치가 부여되어있다. 다음 그림15)은 이러한 억양형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초점과 관련된 억양 곡선의 특성과 표현적 특성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화 내의 ‘새로움’과 ‘알려짐’의 구별에서 억양의 높/낮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어의 경우에 발화의 ‘알려진’ 부분에서 높어조가 나타나기도 하고, 낮어조로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기도 한다. 문제는 정보 초점을 나타내는 초점 들들림이며 이것은 말하는 이의 태도나 감정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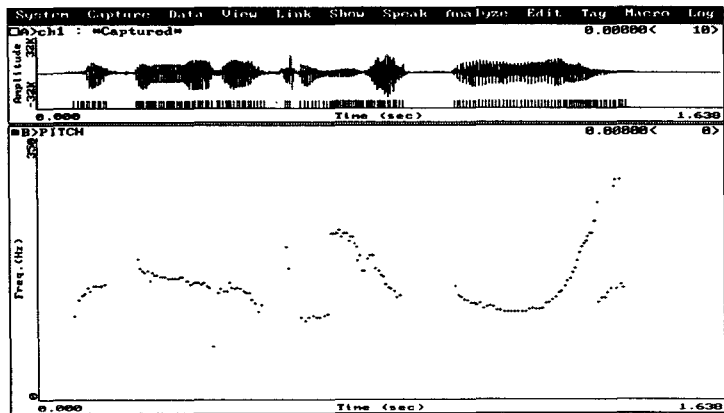
15) 이것은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생의 발음을 CSL 4300B (Kay Elemetrics, sampling rate: 10 kHz)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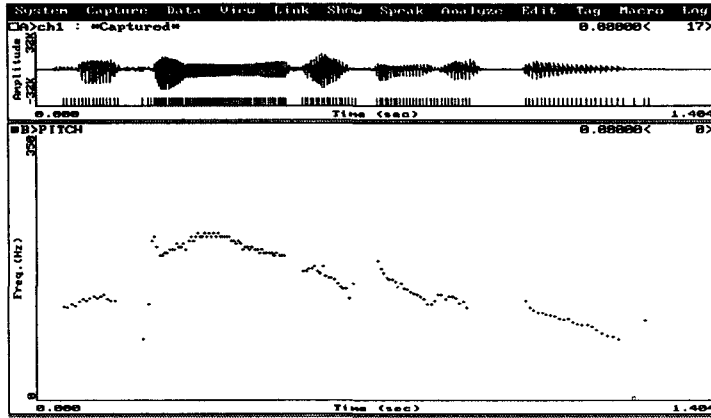
<그림 1> 무슨 /일\이 생겼어요 (34 가).



<그림 2> 무슨 일이 /생\겼어요 (34 나).



<그림 3> 무슨 일이 /생\겼어요? (34 다).



<그림 4> / 무슨\ 일이 생겼어요?

- (35) 가. 이게 다 \오빠/ 때문이지요 ↑
 나. 이게 다 /오빠\ 때문이지요 ↓

발화 전체가 정보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는 다음 예들에서처럼 이른바 ‘정보 흐름 원리’(information flow principle)에 따라 정보초점은 자연히 발화의 뒷부분에 위치하면서 무표적인 억양의 높내림조가 형성된다. 즉 듣는 이에게는 발화 전체가 새로운 정보가 된다는 뜻이다.

- (36) X : (좀 빨리 들어오지 않구)
 Y : 친구 만나 얘기가 /길어\졌어요 ↓
 I/S[친구 만나 얘기가 F[길어졌어요]]I/S
- (37) X : (어쩌면 저렇게 똑똑해?)
 Y : 혜성같이 나타나는 젊은이가 /많\아요 ↓
 I/S[혜성같이 나타나는 젊은이가 F[많아요]]I/S

다음 예를 보자.

- (38) 나를 이 꼴로 만든 건 /아버지\예요 ↓
 (39) 밖에 너 좋아하는 /눈\ 와 ↓

위의 예들은 일종의 강조 구문으로 ‘아버지’, ‘눈’에 높돋들림이 주어지면서 초점 범위를 형성한다. 이러한 발화가 다소 특이한 것은 두 개의 담화 세계(discourse

world) 사이의 접촉이 관련된다는 사실이다. 지시대상인 ‘아버지’는 텍스트 외적(text-external) 세계의 요소로 당연시되면서 동시에 이른바 텍스트 내적(text-internal)¹⁶⁾ 세계에 속하는 ‘나를 이 꼴로 만든 건 x이다’라는 명제에서 논항 x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아버지’가 다른 대상과의 대조성(contrastiveness)이 없음을 의미한다. 만일 어떤 대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위의 예는 다음과 같은 ‘유표적’ 억양이 되고 ‘아버지’가 초점이 된다. 또한 초점 돌들림과 정보 구조는 통사적 구조와도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예이기도 하다.

(40) /[★]아버지가 \ 나를 이 꼴로 만들었어요 ↓

여기서 국어의 억양과 대조성을 살펴보자. 국어에서는 대조의 효과를 달성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발화의 ‘알려진’ 부분을 낮어조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알려진’ 부분을 높어조로 말하는 경우에는 낮어조의 경우에 비해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나 자신감을 좀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화의 ‘알려진’ 정보는 낮어조가 되지만 다음 예와 같이 낮어조인 돌들림이 초점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41)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정상 /이라고 생각해? ↑
[+low]

(42)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정상 \이라고 생각해? ↑
[+high]

위의 두 예는 각각 돌들림과 초점 범위의 어조가 다르고 따라서 표현력(expressive force)도 차이가 있다. (41)은 돌들림 음절이 낮은 어조에서 출발하면서 일종의 암시적 대조로서 ‘비정상’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¹⁷⁾ (42)는 높돌들림으로 놀라움 또는 실망을 나타낸다. 이 두 예는 말하는 이의 태도가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어떤 태도적 효과의 달성 여부는 말하는 이가 결정할 문제이고 발화의 초점 기능을 갖는 어휘 항과 관계 있는 초점 돌들림은 필수적으로 표면에 나타난다. 다

16) Lambrecht는 담화 세계(universe of discourse)를 ‘텍스트 외적’ 세계와 ‘텍스트 내적’ 세계로 구분한다. 전자는 발화 참여자(speech participant)와 발화 상황(speech setting)으로 되어 있고, 후자는 단어, 구, 문장과 같은 언어적 표현과 의미로 되어있다(Lambrecht 1994:36-37).

17) 발화에서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대립항을 암시해주는 경우를 암시적 대립이라 한다(이영길, 1988:195). Taglich(1982)에 의하면 영어의 /I didn't do it#/ he did#에서 긍정-부정의 대립을 일차적 대립(primary opposition)이라 부르고, I, he를 이차적 대립(secondary opposition)이라 부른다.

음 예들을 보자.

(43) 행복은 가정 /밖\에서 찾을게 아니라↓ 가정 /속\에서 찾아야해↓

(44) 8.15 /해방\이 아니라↑ 8.15 /광복\이라 해야 맞습니다↓

(45) 나한테는 /친절\한데↓ 친구한테는 /불친절\하네↓

위의 예는 하나의 긴 발화 속에 두 개의 억양구에 대조 항들이 들어 있는 경우로 명시적 대조 항들은 높돈들림을 가지며, 두 개의 억양구가 각각 초점 돌들림을 갖는 상호화맥적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돌들림의 실현은 발화 내에서의 그 위치에 달려 있고 초점 범위 밖의 어휘항과 관련이 있는 돌들림은 탈락이 되어 이른바 영어의 탈악센트(deaccenting)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 우선 다음 예들을 보자.

(46)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야↓ (☆은 탈악센트 위치)
 /s[사느냐 죽느냐]/s

(47) 성공이나 /실패냐\는 기업에 달려어↓
 /s[성공이나 실패냐]/s

(48) 만남과 헤어짐이 쇠아 가슴을 적신다↓
 /s[만남과 헤어짐이]/s

위와 같이 두 개의 대조 항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초점 범위를 형성하면 두 요소의 상대적 대립성(oppositeness)의 약화로 인해 첫 번째 요소보다는 두 번째 요소에 초점 돌들림이 주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이미 전제된 알려진 정보가 앞에 나타나 있고 두 요소 사이의 거리가 있을 경우에도 역시 뒤에 오는 새로운 정보에 돌들림, 즉 정보 초점이 강하게 할당된다. 다음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앞에 있는 알려진 정보가 화맥이나 또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 생략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49) 책가게보다는 /연탄\가게가 더 어울리겠는데↑
 /s[연탄가게가]/s

(50) 편지가 아니고 /이력서\란다↓
 /s[이력서란다]/s

(51) X : 날 헐박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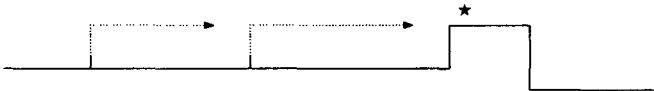
Y : 헐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s[사실이잖아]/s

여기서 말하는 대립성(oppositeness)은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면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 형식적 대조성은 모든 문장의 정상 강세 곡선이 통사구조나 정보 초점에 의해 결정되고 최종 강세가 악센트가 된다는 견해인 반면에 후자는 ‘A 대신 B’(Bolinger 1961), 또는 ‘하나의 긍정은 다른 하나의 부정’(Pike 1945)이라는 견해이다. 실제로 정상 악센트에 관계없이 의미적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의미 대립 없이도 악센트가 정상에서 벗어나기도 한다.¹⁸⁾

다음 예 (52)에서 ‘무시하는’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실제 말하는 이는 ‘버릇’의 ‘버’에 흔들림을 부여함으로써 흔들림과 초점의 ‘부조화’(misfit) 결과를 초래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초점 범위를 한정해 주는 정보 구조 경계는 ‘무시하는’을 포함해야 한다.

(52) 년 세상을 무시하는 /버릇이\ 있어↓
 년 세상을 /s[무시하는 버릇이]/s 있어.

화맥에 의한 초점의 파생을 차단해 주는 정보 구조 경계는 ‘알려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분리해주지만 그것이 반드시 음성적 명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발화의 ‘알려진’ 부분이 보통 낮어조이며 새로운 정보를 갖는 정보 구조는 전체 높낮이 ‘단계 상승’(step up)이 되는 일이 흔히 있는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52)의 예도 다음과 같은 초점 확대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53) 년 세상을 무시하는 /버릇\이 있어↓
 /s[F[버릇이] 있어]/s

18) 특히 영어의 대명사와 관련하여 Halliday는 악센트음절을 포함하는 대조초점을 ‘구조적 새로움’으로 간주하고(1967:206), 이에 대한 반론으로서 Chafe는 지시대명사, 지시대상의 초점 사이의 상관관계를 무효화하는 예외적 특성으로 해석한다(1976). 이에 대한 반론은 Lambrecht(1984:286-290)을 참조할 것.

(54) 년 세상을 / 무시하는 버릇\이 있어.
 vs[무시하는 F[버릇이]]vs

(55) 년 / 세상을 무시하는 버릇\이 있어.
 vs[세상을 무시하는 F[버릇이]]vs

특히 마지막 예에서 앞머리에 있는 ‘년’이 갖는 ‘알려짐’을 무시한다면 I/S 경계는 결국 전체 발화를 묶어주게 되는 셈이다. 특히 (55)와 같은 경우에 앞머리부터 높어조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뒤에 오는 정보의 ‘알려짐’, ‘새로움’을 결정하는데 억양 신호가 큰 기여를 한다. (53)과 (55)는 억양의 실현이 서로 다르지만 듣는이가 첫 번째 요소에 대해 어떠한 연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발화의 그 부분이 해석될 것이며 그 부분에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앞머리 부분의 높어조는 새로운 정보를 끌어들이고, 낮어조는 앞 요소가 화맥 속에 있거나 또는 이미 언급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55)와 같이 ‘알려진’ 정보의 유표적 실현은 말하는이의 태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추가하는 한가지 방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의미가 관계되는 한 높/낮흔들림의 위치는 말하자면 다른 가능성이나 함축성 등과 대조되는 단어가 새로운 뉴스로 선택되는 부분에 달려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조 자체가 의미상 반드시 명시적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다음 예를 보자.

(56) 이렇게 멋진 호텔 / 처음\이예요 ↓

위의 예를 똑같은 억양형으로 높/낮흔들림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말하고자하는 의도나 상대방의 반응은 같다.

(57) X : 이렇게 멋진 / 호텔\ 처음이예요 ↓
 Y : (처음이라고?)

(58) X : 이렇게 / 멋진\ 호텔 처음이예요 ↓
 Y : (처음이라고?)

일반적으로 (56)이 무표적 억양형이 되지만 (57), (58)의 예들도 다른 어떤 단어와의 분명한 대조의 필요 없이 단순히 어떤 다른 발화에 대한 대답이 되거나 또는 ‘호텔 본적 있니?’와 같은 물음에 대한 응답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흔들림 음절은 보다 더 큰 의미 단위의 영역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조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화자가 발화의 중심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뿐이다.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화맥에서의 발화체에 운율적으로 할당되는 높/낮돈들림과 초점 성분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구두 담화에서 억양형의 결정과 억양의 의미가 정보 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모든 문장에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초점이 있고 높/낮돈들림을 포함하는 초점범위는 다시 정보 초점을 필수 요소로 갖는 정보 구조 경계를 갖는다. 모호성이 없는 적절한 초점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국어 초점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초점 성분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고 화맥에 의한 초점 해석 또한 가능해진다. 초점 성분을 설명하고 높/낮돈들림과 초점 돈들림의 관계를 기술하는 ‘기본 초점 규칙’이 필요하며 ‘정보 구조 원리’에 의해 ‘새로운’ 정보가 선택되어 초점 범위는 화맥에 의해 구체화된다. 정보 구조가 문법 체계의 모든 의미 계층과 관계를 가지며 정보구조의 경계 안에 정보 초점으로 실현되는 초점 돈들림이 있게 되므로 기본 초점 규칙은 ‘초점 돈들림 원리’로 수정되어 초점 범위 내의 음절에 초점 돈들림이 할당된다.

높/낮돈들림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억양형이 억양구를 지배하고 기본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바꿔 말하면 초점과 관련된 억양형의 특성과 표현성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새로움’/‘알려짐’을 구별해주는 억양의 높낮 변화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현상의 대표적인 예를 대조성과 관련된 국어의 예들에서 볼 수 있다. 초점의 정의와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분석이 요구되며, 그러나 국어의 경우 대조성과 대립성의 관계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범주화하려는 시도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¹⁹⁾ 특히 화맥 속에서 돈들림 현상과의 관계에서 초점과 억양의 운율적 역할은 끊임없는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선철(1997), 「국어 억양의 음성학-음운론적 연구」: 서울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화진(1992), 한국어의 주제(Topic)에 관한 화용론적 분석, 「언어연구」 6, 17-38, 언어연구회.
- 성철재(1992), 표준한국어 악센트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언어연구」 6, 39-64.
- 윤일승(1992), 끊임 앞에서 보이는 서울말의 억양특징, 「언어연구」 5, 41-64, 언어연구회 1.
- 이영길(1986),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 의미, 「한글」 191, 15-37, 한글학회.
- _____ (1988), 억양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음성-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 영어의 대립성과 대조성에 관한 체계화의 한 예로는 Taglicht(1982)를 참고할 것.

- _____ (1990), 억양과 화맥 의존성, 「신익성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433-456, 한بل문화출판.
- _____ (1996), 국어 억양의 몇 가지 특성, 「음성학과 언어학」, 서울대 출판부.
- 이현복(1989), 「한국어의 표준 발음」, 교육과학사.
- 이호영(1987), 현대 한국어의 악센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7), 「국어운율론」, 한국연구원.
- 홍사만(1985), 「국어어휘의미연구」, 학문사.
- Ashers, R. E. and J. M. I. Simpson(1994),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eds.)*, Vol 6, 3286-3290, Pergamon Press.
- Bolinger, D.(1958), A theory of pitch accent in English, 109-149, *Word* 14:2-3.
- _____ (1961), Contrastive accent and contrastive stress. *Language* 37, 83-96.
- _____ (1972), Accent is predictable (if you're a mind-reader), *Language* 48, 633-644.
- _____ (1989), *Intonation and its Uses*,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afe, W.(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un, D. M.(1998), Signal analysis software for teaching discourse intonation, *Language Learning and Technology* Vol. 2, No. 1, 61-77.
- Dik, S. C.(1979), *Functional Grammar*. North-Holland Publishing Co..
- Fujimura, Osamu and D. Erickson(1997), Acoustic phonetics, In William J. Hardcastle & John Laver(ed.), *The Handbook of Phonetic Sciences*, 65-115.
- Gibbon, D. and H. Richte(1980), *Intonation, Accent and Rhythm*, Berlin: Walter de Gruyter.
- Grundy, Peter(1995), *Doing Pragmatics*, Edward Arnold.
- Gussenhoven, C.(1983), *A Semantic Analysis of the Nuclear Tones of English*, Reprint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Halliday, M. A. K.(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1, *Journal of Linguistics* 3, 37-81, Part 2, *Journal of Linguistics* 3, 199-244.
- _____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Arnold.
- Halliday, M. A. K. and H. Ruqaiya(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 Group.
- Heuven, V. J. van(1994), What is the smallest prosodic domain? In Patricia A. Keating(ed.) *Phonological Structure and Phonetic Form*, 76-10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erva, J. M. and L. L. Gabriele(1995), *Intonation and focus layers*, *NELS*(25), 335-346.
- Kim, A. H-O.(1985), *The Grammar of Focus of Korean Syntax and its Typological Implica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Kress, G.(1976), *Halliday: System and Function i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Ladd, D. R.(1996), *Intonational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mbrecht, K.(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 Charles (ed.)(1976),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Marek, B.(1987), *The Pragmatics of Intonation*, Lublin: KUL.
- _____ (1992), Focus and intonation, In J. Fisiak & S. Puppel(eds.) *Phonological Investigations*, 443-465,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Mey, J. L.(1993), *Pragmatics*, Blackwell.
- Pakosz, M.(1982), Intonation and attitude, *Lingua* 56, 153-178.
- Selkirk, E.(1984), *Phonology and Syntax: the Relation between Sound and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Taglicht, J.(1982), Intonation and assessment of information, *Journal of Linguistics* 18, 213-230.
- Ward, G. and J. Hirschberg(1985), Implicating uncertainty: the pragmatics of fall-rise intonation, *Language* 61, 747.

접수일자: 1999년 10월 10일

게재결정: 1999년 12월 1일

▶ 이영길(Yeong-Kil Lee)

주소: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

소속: 전남대학교 영어교육과

전화: 062) 530-2437

전자우편: leehj@chonnam.chonnam.ac.kr